

매그루더 장군에게 보내는 공개장 “정군(整軍)과 중견장교들”

※1960년 4.19혁명 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기획과장이던 金鍾泌 중령은 군내(軍內) 3.15부정선거 책임자와 부패 축재자 및 무능 지휘자에 대한 정군(整軍)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되어(61.2.4) 1961년 3.15 강제 예편되었다. 金鍾泌 예비역 중령은 정군운동에 대한 매그루더 유엔군사령관의 편견과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정군운동의 당위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는 친필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정군운동의 한계를 절감한 金 중령은 군사혁명으로 방향을 전환(3.20경), 두 달 후 5.16혁명을 결행했다.

[1]

존경하는 매그루더 장군,

나는 10년간을 육군 정보참모부에서 근무했던 정보장교였습니다. 최근의 수년간은 정보기획과장으로 있으면서 전 육군의 기획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적(敵)에 관한 정보는 물론 우리 육군의 현실을 누구 못지않게 알고 있습니다.

자유대한에 향생(享生)하여 30유여년(有餘年) 조국의 기구한 운명을 몸소 겪어온 나는 애국과 매국(賣國)을 분간할 수 있는 정의감도 간직하고 있으며, 일찍이 귀국에 유학하여 귀국의 문물제도, 고도의 자율성과 진취성 그리고 자유와 평화에서 깃들어있는 박애정신(博愛精神)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남달리 예민한 나의 감수성 속에 희망으로써 간직하고 있는 20세기의 자유민이기도 합니다.

나는 귀하와 귀하 휘하의 자유수호군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군인의 한 사람이었으며, 보은(報恩)과 예의를 지킬 줄도 아는 오늘의 동양인입니다. 영웅주의자가 아닌 나는 기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매」 장군,

귀하와 그러한 일개 중령에 불과했던 나와는 일면식(一面識)도 없습니다. 이는 나에게 큰 불행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3월15일으로써 13년간에 긍(巨)한 충성스러웠던 군인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유는 정군운동(整軍運動)의 주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정군운동을 끝맺지 못한 채 동료 중견장교들과 결별하고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는 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매」 장군,

이제 나는 군대의 특별권력관계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일반통치관계 하의 시민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통해서 나와 같이 정군운동의 선봉에 나섰던 동료 중견장교들은 아직도 군대의 특별권력관계 하에 있습니다. 그들이 군대에 남아있는 동안은 위험인물이란 낙인이 찍혀서 부당한 박해(迫害)를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나는 중견장교들의 애군(愛軍)애족적 신념과 순수성 그리고 희생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정기(軍隊正氣)는 국민의 이름으로 보호 진작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 공개장을 빌려서 호소합니다.

만약 중견장교들 중의 한 사람이라도 신념과 희생정신을 망각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순수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부패한 사회나 군대에 그 원인과 죄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중견장교들의 정군운동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을 기초로 그 당위성과 부당성을 위요(圍繞)코 각종 각색의 관심과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만, 그 누구보다도 절대(絶大)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귀하이었습니다.

일개 시민으로 환원된 내가 우리 군대의 책임자 아닌 귀하에게 공개장을 보내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중견장교들의 정군운동은 부분적인 성공을 인정하나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실패가 우리 군대 앞날에 더 좋은 기회 혹은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불연(不然)이면 아주 불행한 원인을 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神)만이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후세의 사가(史家)들은 반드시 이 역사적 과정과 정군문제를 주제로 많은 페이지를 할애(割愛)할 것이며, 거기에는 우리 중견장교들의 눈물겨운 충성 발로와 더불어 귀하의 처사가 역력히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중견장교들의 정군운동 진상을 이 공개장에 필요한 부분만을 밝히겠습니다. 실패원인도 해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나 우리 국민들의 정군에 관한 인식을 시정하도록 촉구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불만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유일한 희망을 군대에 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매」 장군,

나는 귀하와 양식(良識)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 군대가 지향할 바 뚜렷한 ‘길’을 하루속히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희망과 의식주(衣食住)가 되게끔 자조력(自助力) 있고 참된 군대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바 간절한 것입니다. “신은 언제나 자조하는 자를 돕는다.”는 고언(古諺)을 몇 번이고 되씹어가며….

[2]

존경하는 매그루더 장군,

이(李) 정권의 종말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군대는 일부 고위 장성들의 그에 대한 개인적이고 그릇된 아부(阿附)행위의 경쟁에 의해서 마치 고대 제국군대 모양 ‘특별한 단체’로 변질되었고, 근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기본적 성격 - 국민 공동의 방어자로서의 규범에서 완전히 이탈되고 말았습니다.

1953년 휴전 이래 북한 괴뢰집단에서는 사분오열(四分五裂)로 와해되었던 전력(戰力)의 회복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일부월강(日富月強) 해가고 있는 동안, 이와는 대척적(對蹠的)으로 우리는 국가적인 부패 근성이 만연일로(蔓延一路)이었고 사회나 군대나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원시적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한낱 법전에 속해 있을 뿐, 강자는 그 자체가 법이었고 준법은 약자나 방해자에게 강요되었었습니다. 독재정치의 맹점(盲點)을 간단없이 악용함으로써 위풍(威風)없이 비대해가는 쓸모없는 일부 고급 지휘관들의 호화, 안일, 끝없는 탐욕의 음지에서는 병사들의 고혈(膏血)이 고갈되어 갔으며 군인정신의 마비, 상호 반목(反目), 사기저하, 불평불만의 충일(充溢)로 전투력은 날로 피폐됨으로써 우리 군대는 일전직하(一轉直下) 경군지경(傾軍之境)을 달렸습니다.

1958년 제28사단의 대대장 정 중령(육사8기)이 그의 사단장을 사살(射殺)한 일대 불상사는 결코 그의 개인적인 감정인 순간적인 발작이 아니었으며, 부패장성에 대한 귀중한 희생으로 이룩된 경종(警鐘)이었던 것을 귀하는 아마도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귀국의 경구(警句)에도 “장군이란 곧 쓸 수 있게 짜여져 있어야 하지만, 그저 높이 앉아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Must be Tap, Not on Top.)”라는 것이 있으나, 우리 군대의 일부 장성들은 높이 앉아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군대의 정기(正氣)를 부식(腐蝕)시키는 역할까지도 해왔습니다.

1826년에 ‘노스 아메리칸 리뷰(North American Review)’지의 편집장은 그 독자에게 “군대에 대한 질시(嫉視)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언제나 실감(實感)이었다.”고 쓴 일이 있는데 연대(年代)와 연유하는 바는 다르지만, 나는 이 말을 인용해서 “군 고급장교들에 대한 질시는 우리나라 국민에 있어서 과거 수년간 언제나 실감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매」 장군,

‘국민 질시(嫉視)의 실감’을 자아내도록 개인 욕망에 고식적(姑息的)이고 부패한 ‘나팔수들’이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만 붙어대는 ‘불명확한’ 부조화음에 ‘그 누구인들 올바른 전투준비’를 해왔겠느냐 말입니다.

모든 군인의 계급과 군복은 국민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에 살고 또 명예에 죽습니다. 장성들의 전용차에는 그가 장군 된 명예와 군대의 의표(儀表)를 상징하는 성판(星板)을 달고 있습니다만 서울 거리를 나다니는 전 장성들은 그 성판을 커버로 가리고 국민의 ‘질시’를 피해 다니고 있고, 국가 간성(干城)인 장교들 역시 군복으로 국민들의 행렬에 끼어서 활보하기를 꺼려하며 수치스러워 합니다.

이러한 슬픈 현상은 오로지 국민이 준 명예를 소중히 간직하지 못한 망국적인 일부 사이비(似而非) 장교들 또는 파렴치한 장교들이 ‘국민 질시의 실감’을 자아내도록 부정부패 축재행위를 자행했던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퇴폐적인 사조 밑에서 무책임한 훈령이나 각서만으로 군인의 사기진작이란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거족적(擧族的)인 항거로써 4.19혁명을 일으킨 사회적 원인 - 그 원인은 그러한 ‘나팔수들’에 의하여 3.15를 통해서 조금도 어김없이 오히려 군대다운 적극성을 발휘하여 경쟁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군인된 명예와 국민된 기본권리는 사이비 장성들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완전히 박탈 혹은 말살 당했던 것입니다.

졸주 카스테란(Georges Castellán)은 “군인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군대와 사회와의 상관관계의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군대의 산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면, 그리고 사회적 규정을 받아서 군대에서도 부정선거 부정축재 부패가 이루어졌다면 - 4.19혁명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일체의 구악(舊惡)을 구축(驅逐)하여 발전적 개혁이 이룩되어야 하는 이 마당에 상호규정의 교호작용의 범주에서 떠나서 - 유독 군대만은 구악의 잔재를 취기분분(臭氣芬糞) 보존해야 할 합리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닙니다.

중견장교들은 정군(整軍)을 하게 되면 “군대 내에 혼란이 일어난다.” “전투력이 약화된다.” “유능한 장성을 잃게 된다.” 운운하면서 결정적인 정군시기에 그것을 방해하려는 일부 사이비 애국자들의 잡음은 다만 ‘악’이 ‘악’으로서 연명하려는 일종의 궤변(詭辯)이며 불순한 책동이라고 보았고, 그와는 정반대로 오늘의 진리는 ‘구악들이 배제됨으로써 군내 정당한 불만이 단결로, 혼란은 정연한 질서로.’ ‘전투력 약화는 오히려 참신한 강화로.’ ‘무능한 장성의 정리는 유능한 신예(新銳)인재의 등용으로.’ 각각 대체 발전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 대체(代替)는 오직 구악들이 자신을 반성하고 조용히 자진사퇴(自進辭退)하는 마지막 남은 그들의 양심에서만 아무런 파동 없는 가운데 과도정권 하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정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매」 장군,

1948년 군내 공산분자들의 대량 숙청은 저 위태로웠던 6.25 공산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후 10년간 부패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에는 내일의 승전을 위하여 단연코 정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전승(戰勝)이란 결코 우연이나 천여(天興)의 선물이 아니며 결단·파·인내가 주는 신의 보수(報酬)입니다. 변화 없이 진전 없고 노력과 결단이 없는 곳에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귀국에서도 1953년 ‘늡고 쓸모없으면서 고집불통인 노장군들’을 펜타곤에서 숙청하고 ‘젊고 유능한 참모들’로 대체한 일대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신이 주지만 이용은 사람이 합니다. 고언(古諺)에도 “기회를 잡는데 민첩하지 못하다면 그는 곧 용기가 없는 자이니라.”고 했습니다.

중견장교들은 4.19야말로 정군의 호기(好機)라고 보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일제히 정군운동에 정신(挺身)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

존경하는 매그루더 장군,

1960년 5월2일 국방부장관으로 이종찬(李鍾贊) 중장이 취임함으로써 혁명 후의 과도정부 조각(組閣)이 완료되자 즉시 중견장교들의 행동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① 4.19혁명은 이(李) 정권의 폭정에 원유(遠由)하나 3.15 부정선거에 직접 기인한다. 혁명정신을 군대 내에 구현하기 위하여 3.15 군대부정선거 책임자는 숙청되어야 한다. 단, 그 범위는 부정투표를 과도히 강요한 고급지휘관과 군대 본연의 건립목적과 국민된 기본권리에 위배되는 부정선거는 실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경히 지시했거나, 불연(不然)이면 각각 직책을 걸고서라도 수락하지 않았어야 할 군통수부 즉 군사령관급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이(李) 정권에 아부(阿附)하면서 온갖 부정 불법수단으로 거액을 축재한 자는 적발 처단되어야 한다. 단, 그 범위는 국민의 이목(耳目)에 현저히 노출됨으로써 개인은 물론 군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③ 무능 파렴치하여 리더십이 결여된 고급지휘관은 정리되어야 한다. 단, 그 범위 및 기준은 특설 정군위원회에서 책정한다.

④ 군대를 정치로부터 완전 중립화하고 모든 제도(특히 인사제도)를 기준화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⑤ 이상 4개 항은 소요 연구 및 집행을 위한 각 특설위원회로 하여금 시행케 하되 과도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상부 권한자에게 반영시키는 중견장교들의 행동수칙으로는,

“① 우리들의 정군(整軍) 주장은 전투력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 고로 현유(現有)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행동이 야전군 혹은 군부 외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우리들은 실력행사를 회피한다. 시종(始終) 현역장교로서 행동하되 건의, 종용, 설득 등 제(諸)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들의 열성으로서 해당자가 자신을 반성하고 자진사퇴하도록 기회를 조성하는 동시에 대상자는 임면권한자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통수계통을 보장한다.

③ 우리들은 여하한 배후도 사주(使噓)도 이를 단호히 배격하며 오로지 중견장교다운 순수한 군인정기만을 발휘한다.

④ 우리들은 정군운동의 선봉으로서 여하한 희생도 이를 감수한다.

⑤ 우리들은 정군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기별(期別)·계급을 초월하고 단합한다.

⑥ 우리들의 행동기간은 신정부 수립까지로 한다. 단, 소기의 성과가 없을 때에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절된 행동수칙에 의거 정군운동을 계속한다.” 라고 행동요령과 범위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중견장교들은 정군운동을 통해서 단 한 번이고 마지막 경우(최영희 장군 사퇴권고)를 제외하고서는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중견장교들은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로 음밀(陰密)활동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나 행동 자체에 대하여 수많은 유언(流言)과 중상(中傷)이 설왕설래(說往說來)했었고 지금도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있으나, ‘지성이면 감천’일 것이라고 믿었던 중견장교들은 일체 해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귀하 및 국민들 앞에 중견장교들의 주장했던 바와 행동수칙 전문을 공개합니다. 나는 이것으로서 중견장교들의 미충(微衷)의 일부라도 재인식 될 수 있는 자료나 기회가 된다면 더없는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매」 장군,

중견장교들이 정군을 과정(過政)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① 과정(過政) 하에서는 집행권한자나 대상자나 간에 혁명적 자극을 고도로 살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하에 있으므로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국민 이목(耳目)이 사회나 국가기관의 규탄에 집중된 틈을 타게 되므로 대내 대외적인 영향이 최소한도로 감소되고 군 위신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③ 신정부 수립 후에는 새로운 정치적 제약이 과다히 작용될 것이므로 정군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군내 불평불만은 음성 악질화(惡質化)되어 군의 불안정을 조장할 것이다.

④ 신정부의 혁명 뒤처리에 엄정한 힘이 되고 군대의 정치적 중립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군내 구약의 제(諸) 요소가 과정(過政) 하에서 축출되어야만 할 것이다.

⑤ 신정부는 정권안정을 위주로 이(李) 정권 하에서와 같은 군웅할거식(群雄割據式) 인사배치로서 상호 견제책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불가능케 할 것이며 참모총장은 대담하고 결단성 있게 군을 통솔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군내의 온갖 구약은 조장될 것이므로 전투력은 약화일로(弱化一路)를 걷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세와 상황판단 끝에 정군은 과정(過政) 하에서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중견장교들의 주장이 옳았음은 이미 입증되었고 우려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4]

존경하는 매그루더 장군,

1960년 5월17일 정군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된 나와 나의 동료 3명(대령 1명, 중령 2명)을 송요찬 중장(당시 육군참모총장)의 긴급명령으로 ‘국가반란음모사건’이란 어마어마하고 어처구니없는 죄명을 씌워서 육군 특무부대에 구속함으로써, 정군운동이 표면화 되었을 때 육군본부의 분위기는 사뭇 험악했었으나, 중견장교들의 참되고 강렬한 주장을 재빨리 양해한 송 장군은 즉시 우리들을 석방하고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자인(自認)한다. 확실히 우리 군대는 계급이 높을수록 부패했다. 그러한 우리의 군대에도 귀관들과 같이 정기(正氣)를 간직한 중견장교들이 있다는 것은 이 군대 장래를 위해서 행복된 일이다. 이제 우리 군대도 정군을 단행하여 참신한 기풍을 일으켜야 할 때가 왔다. 굳건히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 군대의 정화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당부하면서, “나는 군문(軍門)을 떠나는 마당에 한결 든든한 바 있다.”고 소회(所懷)를 토로, 자진해서 군직(軍職)을 사퇴했던 것입니다.

송요찬 중장이 결연히 사표를 제출하고 속죄를 표명하자 육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송 장군의 뒤를 이어 사의를 표명하고 과정(過政)의 허 정 수반에게 그들의 거취를 일임하였습니다. 육군의 전 장교들은 절대(絶代)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과정의 재치 있고 숨씨 있는 인사처리를 주시했던 것인데, 천만 뜻밖에도 UN군사령관인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현직 유임을 주장하면서 군내 부정선거 문책을 송 장군으로서 결말 지우도록 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기반 없고 신념 없는 과정(過政)으로 하여금 귀하의 이례적인 인사 간섭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했습니다.

물론 한국 방위문제를 전제로 취해진 귀하의 최초 간섭이었으나 정군의 호기(好機)는 그 출발부터 암초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고 합니다만 오늘날 강력 구충제는 얼마든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초가삼간 태울까봐 기우(杞憂)로서 우리 군대에 무덤고 불유쾌한 여름밤을 연장시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중견장교들의 정군운동에 대한 비판이 군 내외에 비등(沸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여론은 대체로 중견장교들에게 동정적이었고 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정되지 못한 정치정세에 감(鑑)하여 신중을 기대하는 온당한 뒷받침이었으나, 귀하를 중심으로 하는 미 군부에서 제공되었거나 불연(不然)이면 거기서 취재되었다고 믿어지는 외신보도에서는 정군운동을 마치 불순한 책동인양 왜곡되고 자극적인 기사내용이기 때문에 메아리처럼 즉각적으로 국내에 되돌아와서는 엉뚱한 반향과 파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즉 외신들은 ‘한국 군부의 심각한 동요’라고 제(題)하여

“① 중견장교들의 진급에 대한 불만에서

② 야심적인 신진 장교들의 선동에서

③ 기타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서”

등이 있는 바, 그와 같은 피상적이고 중상적(中傷的)인 비방보도들에는 매우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밀즈(Mills) 교수는 ‘들어라 양키들아!(Listen Yankee!)’에서 “모든 보도의 정확성은 과거에 그 기자가 쌓아올린 상투적인 습관을 버릴 것을 요구하며 세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북미 기자들은 그런 다양성에 무지하다.”고 말했습니다.(이하 5쪽 소실(消失))

(공개 1961. 3월 하순)